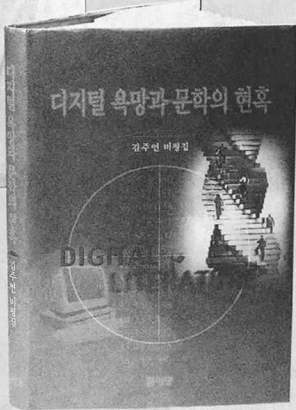




김주연 교수

문이당/A5신/336면/12,000원



종교적 신성 희구하는 문학의 본질 탐구해

《디지털 욕망과 문학의 현혹》 펴낸 김주연 교수

문학과 종교는 배타적인 것인가. 아니다. 오히려 문학은 종교적일 수밖에 없다. 인간 존재의 한계성에 대한 탐구를 본질로 하는 문학은 필경 존재를 구원하는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교수의 기본 입장이다. 존재에 대한 질문을 망각한 오늘날의 많은 문학작품들을 종교적 프리즘에 투과시켜 관찰한 김교수의 '비평일지'는 그래서 다분히 우울한 논조를 띤다.

4·19 세대 문학평론가 김주연 교수(61, 숙명여대 독문과)가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발표한 글을 묶은 《디지털 욕망과 문학의 현혹》(문이당)을 펴냈다. 김 현, 김병익, 김치수와 함께 '문지4K'로 불리며 평단을 주름잡아온 지 어언 30여년. 이번 책과 함께 그는 단독 비평집 '10호'를 기록했고, 개인적으로는 회갑년을 맞았다. 소회가 남다를 만도 하련만 그는 "권수만 쌓여가는 것 같아 민망하다"며 겸손해한다.

문학과 종교의 상호관계 분석해

하지만 책을 꼼꼼히 뜯어보면 그가 예사롭지 않은 주장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지털 문명과 문학 대중화의 문제, 문학과 종교의 관계, 페미니즘 등 다소 '뜨거운' 주제들에 대한 선명한 입장표명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제1장에서는 김주영과 한승원 소설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을 살핀다. 김주영의 경우 하층계급의 본능적 삶을 에로틱하게 묘사하고 풍자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연민'의 정신을 높게 산다. 반면 한승원은 섹슈얼리티가 생물적인 힘으로만 용인돼 '신비주의'로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신비주의는 시인 남진우의 묵시록적 세계관에도 섞여든다. 김교수는 "구원을 포기하고 사는 것이 문학의 구원이라면, 넓은 의미에서 그 문학은 섹티멘탈리즘"일 뿐이라고 단정짓는다. 게다가 남진우의 허무주의는 벽이 너무 얇다고 덧붙혔다.

"오늘날 문학은 천박한 욕망론의 기반 위에서 성급하게 열기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물질화된

섹스와 자살충동은 기계문명이 낳은 타락상일 뿐이죠. 그 반대쪽에서는 농촌 정서를 통해 선(善)을 이념화하려는 추세가 두드러집니다. 그렇지만 삶의 현장성을 간과한 '자연 따라가기'가 과연 예술적 힘을 지닐지 의문이죠."

김교수는 "문학은 왜 진검승부하지 않는가?"하고 묻는다. 이 의문은 문학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인 인간 구원의 문제와 직결된다. 김교수는 이 지점에서 문학과 종교의 상관성으로 논의를 진전시킨다. "현대 이전의 모든 문학은 종교적이었고, 문학적 상상력은 신의 영성에 영혼을 부비는 행위와 다름없었다"고 문학과 종교의 '과거'를 새삼 환기시킨다. 그는 아예 문학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한다. '기독교적 신성'을 추구하는, 종교의 초월적·총체적 세계관에 수렴되는 것이 문학의 본질이라는 주장이다.

그렇다고 이 주장을 문학에 종교의 초월성과 전망을 '수혈'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다. 김교수가 종교를 제기하는 문맥은 인간의 존재와 한계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세 자체가 바로 종교와 만나는 지점이며, 문학이 세속적인 것을 초월하고 전망을 부여받는 순간이라는 것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이승우와 정찬의 소설을 "종교적 주제로 보편적 공감을 획득한 한국문학의 한 개가"라 고평한다.

"서양의 경우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쌍생

아처럼 자라 온 정신사적 문맥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모더니즘과 마르크시즘 같은 현상이론 수용에만 치우치면서 문학과 종교를 배타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 막연한 분위기가 강하게 드리워지게 됐습니다."

대중문학 확산에 대한 우려 표명해

종교에 대한 사회전반의 무관심이 문화의 질적 하락을 초래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가 문화의 나라라면 그것은 문화소비국이란 의미지, 문화생산국 쪽은 결코 아니라고 진단한다. '대중문학'에 대한 김교수의 입장은 단호하다.

"오늘날 대중문학은 높은 감염성, 휘발성을 발휘하면서 대중들에게 문화통로의 기능도 하기도 하죠. 하지만 많은 것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은 필연적으로 소박합니다. 대중문학의 확산이 문학의 민주화로 등식화되고,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는 일은 문학의 본래적 의미인 언어의 섬세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대중문학은 문학이라는 사회적 기호와 제도에 대한 위협입니다."

문학이 지나치게 대중들의 호응에 민감히 반응하게 된 것은 인문주의자들의 관심이 세속적인 곳에 머물고 있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강조하는 김교수는 "문학은 사람이 그 한복판에서 숨쉬고 있는 가장 분명한 생태계"라는 말로 문학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강성민 기자